성오 대선사 가르침 새긴 부도탑 제막

6월 27일, 범어사 보제루서
20주기 맞아 부도탑·비 조성
명장들, 2년여 원력과 정성
"화합하고 부산 불교 중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6월 27일 목우당 성오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맞아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평생을 수행과 가람 수호에 헌신한 목우당 성오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거울삼아 문도의 화합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을 담은 부도탑이 건립됐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6월 27일 경내에서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비문을 지은 불국사 승가원장 덕민 스님, 문도 대표 초안 스님 등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범어사와 운수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대선사의 유훈을 기렸다.

방장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오 대종사께서 입적하신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문도 스님들이 뜻을 모아 부도를 모시게 된 것을 치하한다"며 "특히 덕민 큰스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비문은 마치 용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듯 훌륭하며, 부도탑 구석구석에 깃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오늘 사부대중이 이토록 많이 모인 것은 성오 큰스님의 크나큰 덕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좌 스님들이 늦게나마 원력을 세우고, 특히 운수사 주지 스님과 불자님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정성을 아끼지 않아 여법한 부도전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와 비는 각 분야 장인의 원력과 정성으로 완성됐다. 덕민 스님이 비문을 짓고 썼으며, 상좌인 초안 스님(경주 순금사)이 감수를 맡아 경주석으로 제작됐다. 또 홍덕희 석장이 2년여에 걸쳐 거북 모양의 귀부와 용 문양의 이수를 조성했고, 비신은 보령 웅천 오석을 사용해 김홍수 석장이 2000여 자의 비문을 해서체로 새겨 넣었다.

비문을 직접 짓고 글을 쓴 덕민 스님은 "우리가 산을 보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산이다. 이것이 바로 금정산 동산 대종사의 선풍"이라며 "오늘 제막한 부도의 참된 모습을 거울삼아 문도가 더욱 화합하고, 범어사가 중심이 되어 부산 불교를 다시 크게 중흥시키자"고 당부했다.

문도 대표 초안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가신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본사인 범어사에서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 그리고 사중 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 덕분"이라며 "부도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운수사 주지 범일 스님과 신도들께도 감사드리며, 제자들은 은사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우당 성오 대선사는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73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후 범어사를 비롯해 대흥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16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1978년 부산 운수사 주지를 맡아 천년고찰 운수사의 가람을 중창했으며, 1995년부터 범어사 제22·23대 주지를 역임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2002년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하는 등 종단 안팎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 불사에도 헌신했다. 2006년 6월 8일 주석하던 운수사 세심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63세, 법랍 48세.

"대학생 안목으로 불교 매력 알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6월 20일 범어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 부산 불교문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불련 부산 '불교문화서포터즈'
불교문화체험·홍보물 제작 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맞아 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나선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는 6월 20일 범어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 부산 불교문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1기로 선발된 15명의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 부산 지역 주요 사찰과 국가유산, 전통문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숏폼 영상, SNS 콘텐츠 등 청년 친화적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교문화 관광코스 발굴과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의 불교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자산"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배우고 체험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활동이 지역 문화유산을 아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포교는 내가 먼저 배우고 느낀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사찰과 문화유산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감동을 또래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문화 전법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철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는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뜻깊은 기회"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통해 부산 불교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기수별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싱잉볼 파동으로 마음 어루만져요"

싱잉볼치유의소리, 하반기 강좌
7월부터 중·고생 프로그램 진행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는 7월부터 하반기에 걸쳐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젝트 '싱잉볼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사진은 청소년들이 싱잉볼 명상을 하는 모습.

학업 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교우관계 갈등 속에서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소리의 파동'과 '명상'으로 어루만지는 치유 프로그램이 부산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 스님)는 7월부터 하반기에 걸쳐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젝트 '싱잉볼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부산시의 '2026년 위기청소년 건전 성장 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따뜻한 쉼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청소년기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감각 기반의 접근법'에 있다. 참가자들은 싱잉볼의 규칙적인 공명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과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게 된다. 소리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심리적 이완을 유도함으로써,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스스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조절하는 '자기돌봄(self-care)' 능력을 체득할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의 여건과 필요에 맞춘 3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7월 11일 부산 홍법사 싱잉볼 치유의 소리 명상실에서는 단기간 내 깊은 정서 안정을 돕는 7시간 집중형 '쉼표 ON, one day'가 열린다.

이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통합형 '마음 회복 CAMP'가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호흡과 이완을 통한 감정 온도 낮추기, 신체 감각을 깨우는 움직임 명상, 향기를 활용한 아로마 정서 안정 등이 주요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을학기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8회기 지속형 프로그램인 '나를 이해하는 시간, 너를 이해하는 연습'이 진행된다. 1차(9월 6일~27일)와 2차(10월 11일~11월 1일)로 나뉘어 매주 일요일 총 4회씩 진행되며, 명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심층적인 관계 기술을 배우게 된다.

싱잉볼치유의소리는 "비언어적 감각 치유와 체계적인 교육이 또래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강한 자율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하반기 지속형 프로그램 등 자세한 일정 확인 및 참가 접수는 전화로 하면 된다. 051-508-034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부산불교환경연대, 7월 2~3일
워크북 기반 실습 중심 교육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이 G:reen 지구' 워크북을 최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교육'을 7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지도자 양성 과정은 새롭게 개발된 워크북의 실제 적용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워크북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16차시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환경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자 중심의 토론식 교육'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자연과 단절된 채 자라고 있다"며 "이번 16차시 프로그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감수성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수료자들은 향후 부산 지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홍법사서 '호국의 숨결 대회' 시상식

6월 28일, 한나문화재단 주최
교육부·통일부 장관상 등 수여



사단법인 한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이 6월 28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글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표현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열린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심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난 현충일 여러분이 작품에 담아낸 나라사랑의 마음이 오늘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수상이 더 큰 애국심과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를 더욱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그림 부문 부산예술중 길예진 학생이 교육부 장관상을, 글짓기 부문 장안중 송채아 학생이 통일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그림·글짓기·서예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호국의 숨결 대회'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문화예술 공모전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팔만대장경 수호' 김영환 장군 뜻 기려

6월 30일, 해인사서 추모재
혜일 스님 "숭고한 정신 계승"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6월 30일 경내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한국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고(故) 김영환 장군의 7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봉행사에서 "장군께서는 팔만대장경의 존엄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우리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정신이 후세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권영민 공군교육사령관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의 숨결을 느끼고 천년고찰 해인사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장군님의 혜안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며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호국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모했다.

김정기 유족대표는 "팔만대장경이 지닌 가치와 위대함을 알아보고 끝까지 지켜내신 아버지 김영환 장군을 가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재에서는 김영환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추모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 성료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회 수국축제·산사음악회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회 수국축제 및 산사음악회'를 열고 아름다운 수국과 전통 불교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올해 축제 기간 용문사 경내에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주말에는 '용문사 수국 버스킹'이 열려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관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과 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

7월 4일에는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수 정미애, 신명근, 황인아, 이주은, 버디 김, 윤철, 류은희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 전통 다도체험과 차 시음회가 진행돼 방문객들이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다도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차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 차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도량으로 조선 숙종 때 왕실 보호 사찰인 수국사(守國寺)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수국이 만개한 아름다운 도량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과 문화, 불교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